

「아시아공동체: 일본기업과 아시아 및 대만과 일본 기업 협력」

글쓴이:진순익

번역:강지훈

제 8 회 강연에서는 국립타이중과학기술대학교 응용일본어학과·일본 마케팅 및 비즈니스 전략 대학원 교수 겸 일본연구센터 센터장이신 黎立仁 교수님께서 강의를 위해 오셨습니다. 강연 주제는 「아시아공동체: 일본기업과 아시아—대만과 일본 기업 협력을 논하며」이며 여 교수님의 강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일본이 아시아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21 세기에 들어와서 아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되어 동남아시아 협의회(이하, 아세안¹이라 칭한다)도 이제부터 새로운 물결의 움직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5 년을 전후로 일본기업의 중국 투자에 대한 첫번째 열풍이 나타났고, 2001 년 중국이 WTO 에 가입한 이후에도 빠른 성장세를 보였는데 2012 년 이후에야 일본 기업의 아세안 투자가 중국 투자를 넘어섰습니다.

요새 몇 년간 일본이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하, 노령화로 칭한다)으로 인해 시장이 포화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베노믹스는 경제성장과 지방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아시아로 진출하는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중국의 대일 감정 등의 리스크도 일본 기업의 아세안 투자를 증진시켰습니다. 최근 아세안 각국의 소득 상승, 중산계급 부상, 그리고 2015 년 동아시아경제공동체(AEC)의 성립으로 아세안이 중국 및 인도 다음 규모의

¹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세계 3 위 시장이 되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대만과 일본 기업에게는 아세안 투자의 긍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ODA²의 대국인데 그 이유는 세계대전 후 아시아 각국에 대한 배상 때문입니다. 1968 년부터 일본은 세계 GDP 2 위 대국으로 올라서서 선진국으로 국제적 책임 이행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다른 한 편으로 ODA 지원으로 이룬 피원조국의 인프라 건설은 일본 기업의 현지 투자와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 특히 그러합니다.

그리고 대만·일본 기업은 높은 상호보완성이 있는데다 장기간의 신뢰관계가 있어 전략 얼라이언스로의 좋은 토대가 됩니다. 대만기업의 장점은 중화권 네트워크, 교섭 능력,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빠르게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장점은 차별화된 기술력, 개발능력, 브랜드파워, 퀄리티와 생산 관리 능력입니다. 대만·일본 기업이 각각의 강점을 발휘해 좋은 협력관계 형성되어 있어 중국과 아시아 국가로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근래 대만·일본 기업의 아세안 투자 중에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대폭 성장세를 보입니다.

대만의 신남향정책(New Southbound Policy) 배경은 중국과의 특수 관계로 인한 위험 분산의 필요성 외에 노령화를 대응하기 위한 시장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아세안을 국내 시장을 이은 확대된 시장으로 삼았는데 이는 일본이 직면한 문제와는 공통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대만·일본 협력한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동남아 진출 가능성에 대해 토의해보고자 합니다.

(1)일본 綜合商社와³의 협력

일본종합회사의 장점은 무역, 물류,정보 등 회사 기능뿐만 아니라 국제네트워크와 다분야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남향정책을 추진할 때 대만기업이 일본 종합상사에게서 네트워크와 효율적인 시장루트 등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만 서비스업체들은 중소기업이 많으므로 일본 종합회사의 인프라를 활용해 현지 공급 체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대만·일본 기업 합작의 확대

일본의 대만 현지 비즈니스 서비스업 합작투자(joint venture) 중 대만을 동남아시아 진출의 첫 테스트 거점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만에서 SOP 를

²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즉 선진국 정부기관에 의한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관에의 원조로 증여, 차관, 배상, 기술원조 등 형태를 취합니다.)

³ 종합회사, 總合商社 (General Trading Company)

구축하고 사업을 안정시킨 후에 대만에서의 성공 사례를 중국과 동남아 시장, 특히 중국인 활동지역으로 확대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만·일본 기업 합작투자는 앞으로 양국의 신뢰, 협력, 그리고 정부의 협조 하에 아세안까지 확장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여 교수님은 강연 시작할 때 정밀한 도표로 전 세계의 수출입에 있어서 대만과 일본의 상황을 소개하셨습니다. 대만과 일본의 상호투자를 분석한 결과, 2011-2013 년 일본 3·11 대지진으로 고조된 천재지변 리스크 대비로 인해 일본 기업의 해외 투자를 선호했습니다. 해외 시장 중에 대만은 유력한 후보 시장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 3 년동안의 대 대만투자가 약 1배로 폭증했습니다. 이어서 2013-2016 년은 시계추 효과⁴로 대만투자 건수가 점차 안정되었지만 역시 2011 년 이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 외에 2016 년 대만 대기업 鴻海(Hon Hai Precision Industry)가 일본 SHARP社를 매입했기 때문에 대만의 일본 투자액이 1년 전보다 15 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투자성장률이 1382.65 %에 달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3·11 지진 발생 이후 양국의 경제 무역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또한 수출입 금액을 살펴보자면 대만의 일본 상품 수입금이 수출액보다 훨씬 많고, 일본 제품(대표적인 예,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세계 평균 이상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대만의 신남향정책과 일본의 아세안 투자에 대해 분석하셨습니다. 먼저 일본의 아세안 투자는 태국이 제일 많은데 그 이유는

⁴ Pendulum effect, 풀프리히 현상이라고 하며, 기업이 물밑 듯 한 지역을 떠나지만 결국 돌아오게 되는 현상을 시계추 현상에 빗대어 지칭한다.

태국이 예전부터 전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대만 2013 년 6 월까지의 아세안 투자국 1 위는 베트남 35.6%, 2 위는 인도네시아 18.6%, 3 위는 태국 15.1%, 4 위는 싱가포르 13.9%, 5 위는 말레이시아 13.0%, 6 위 필리핀이 2.4%입니다. 베트남 투자가 가장 많은 이유는 화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 교수님은 대만·일본 합작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동남아 진출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종합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일본 종합회사는 무역, 물류, 정보 등 회사의 기능 뿐만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 역시 활발합니다. 그리하여 이를 활용한 소위 공동 전략 얼라이언스를 추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만·일본 합작 회사의 제 3 국 진출 외에 장기간의 신뢰 관계를 토대로 한 제 3 국의 합작투자나 일본종합회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진출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아세안 등 신흥 시장에서도 생명기술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종합회사도 건강식품, 화장품 부문의 영업을 개시해서 각종 판로를 열어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과 홈쇼핑에까지 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만이 신남향정책을 추진하는 이 때 대만 중소 서비스업체들은 일본 종합회사와의 합작을 통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만 업체의 규모는 상대적 작아서 종합회사를 통해 현지의 공급 체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의를 끝내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전문성이 있는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학생들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